

성격유형과 독서성향 관계에 기초한 독서치료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Bibliotherapy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Reading Tendency

한 윤 옥(Yoon-Ok Han)**

목 차

- | | |
|-----------------------|----------------------------|
| 1. 서론 | 3.2 에니어그램의 역사와 성격유형별
특성 |
| 2. 성격연구의 이론과 발전 | 4. 연구방법과 결과분석 |
| 2.1 성격의 정의와 특징 | 4.1 가설과 자료의 수집 |
| 2.2 성격유형과 검사방법 | 4.2 성격유형과 독서성향의 상관성 |
| 3.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 | 5. 결 론 |
| 3.1 성격검사로서의 에니어그램의 특징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격유형별로 독서성향이나 행태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성격유형에 기반한 독서치료가 가능할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이 읽고 싶어지는 상황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발달과업이 감정형과 사고형, 본능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수도권에 소재한 K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통계에 이용된 설문서는 815부였다. 연구결과 감정형, 본능형, 사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독서성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격유형별 독서치료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reading tendenc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bibliotherapy based on different personality types. The study mainly focused on three aspects of personality types - converge type, emotional type, instinctual type - and student's reading tendency.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with 815 students in a K university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revealed that the reading tendencies are different from three personality typ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ew bibliotherapy programs according to various personality type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키워드: 성격, 성격유형, 독서치료, 독서성향, 독서행태,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Personality, Personality Type, Bibliotherapy, Reading Tendency, Reading Behavior,
Emotional Type, Converge Type, Instinctual Type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ohan@kgu.ac.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7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8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5-59, 2010. [DOI:10.4275/KSLIS.2010.44.3.025]

1. 서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저런 감정의 부대낌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울거나 웃거나 화를 내는 것은 발생한 바로 그 사안 때문이 아니라 사안을 대하는 나의 자세나 혹은 감정의 굴곡이 만들어 내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표적인 말이 “일 자체는 괜찮아요. 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많긴 하지만 사실 제가 힘든 건 다른 거예요.” 하면서 누군가와 관계가 힘들다거나 누가 나에게 한 사소한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을 하소연한다.

사실 나 자신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살아온 수 십년간의 삶을 돌아다 보고, 현재까지 내 가슴 속에 쌓여있는 감정의 무리들을 분석해 보면 당시에 벌어졌던 일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된 혹은 그 일과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받은 상처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요즈음도 잠자리에 들면서 그날 일어났던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전전공공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럴 때도 살펴보면 역시 나의 지적에 상대방이 무안해 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강해보일 것이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정작 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반박은 묻어놓고 웃음으로 얼버무렸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든지 또는 갖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은 소심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유부단했던 나를 질책하느라고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다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결국

자기 자신의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처한 나의 모습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게 되어도 사람들의 반응이나 적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담담히 수긍하는 사람, 아니라고 펄쩍 뛰며 반항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가능한 그 상황에서 피하거나 숨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저이는 저 성격이 문제야, 그냥 좀 눈감아주어도 좋으련만...” 하거나 “저 사람은 너무 온순해서...” 등이 모두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적응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llport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 내의 정신적 신체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통일성(personality unity)을 이루는 실재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김현택 외 공저 2003, 393). 또한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결정한다는 말을 통해 성격이 단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행동하고 사고하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한국 심리학회편 2003, 441-442; 김현택 외 2003, 393).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나는 도서관서비스에서도 사람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근래 도서관 서비스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체험형 독서치료¹⁾가 그렇다. 체험형 독서치료에서는 참여자의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치유서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참여자들이 상황에 맞는 '치유적 책읽기, 글쓰기, 말하기'의 과정을 통하여 마음아픔의 치유 체험을 하게 된다(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회 편 2007, 39-41). 그런데 만약 독서치료에서 개개인의 상황 뿐만 아니라 성격유형까지 고려한다면 독서치료는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격은 상황에 접하는 인간의 행동결정을 돕는 중요한 능동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독서치료의 주요 도구로 선택하고 있는 자기치유서나 자기개발을 주제로 한 책의 경우 저자들의 주장은 대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심리화적인 이론을 반영한다. 독자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고 생각마저 유사하다면 그 책 혹은 그곳에서 제시한 방법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와 저자의 생각 및 성향이 다르다면, 다시 말하면 성격이 다르다면 그 책 혹은 방법은 독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가 어떤 변화된 상황에 처하기에 앞서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고, 그것에 맞는 자기개발서나 치유서를 읽어왔다면 훨씬 더 쉽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과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사람은 성격유형별로 독서의 성향과 행태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격유형별 독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곧

도서관의 서비스를 통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독서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유형에 따라 독서하고 싶은 상황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 독서방법이 다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정한 것은 이 정도의 연령대는 성격유형이 어느 정도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책을 읽고자 하는 상황을 비롯하여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발달과업을 자신의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연구의 결과 성격유형별로 독서성향이나 행태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밝혀지면 성격유형에 기반한 독서치료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성격유형별 독서목록을 만들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독서치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성격연구의 이론과 발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성격에 따른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거나 이용서비스를 유도하는 연구는 아직 드물다. 최근에 이제환(2009, 165-186)은 대학 신입생을 사례로 하여 집단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

1) 현재 우리 사회에는 도서관에서의 체험형 독서치료와 사교육시장에서의 지식형 독서치료의 두 유형이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는 책을 매개로 하는 마음치유의 '체험'에 초점이 가 있는 반면, 사교육시장에서의 지식형 독서치료는 독서치료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다분히 그 동기와 유용성의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회 편 2007, 47-48).

이에 부분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존재하며, 감성보다 의존성이 정보행태에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자는 성격이 다른 객체들이므로 도서관의 서비스와 이용자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성격을 변인으로 한 실험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간략히 성격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성격의 정의와 특징

일반적으로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모습 및 특성을 가리켜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지각하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지각방식, 환경과 관계 맺는 행동방식 등이 그가 접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이나 개인적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날 때 비로소 이것을 성격(personality)이라고 말한다(김계현 2003).

탈 혹은 가면의 뜻을 함축한 라틴어 페르조나(persona)가 그 어원에 내포되어 있다는 성격을 신경생리적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 가설적 구성개념(hypothetical construct)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 심리학자가 성격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가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되므로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노안영, 강영신 공저 2002). 성격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Liebert와 Liebert(Liebert & Liebert, 1998)의 정의도 앞서 언급한 Allport의 정의와 유사하다. 이들은 성격을 “개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행동과 반응들에 영향을 주는 한 특정한 개인의(신체적 심리적)특징들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김현택 외 2003, 393). 최초로 성격심리학 교재를 저술한 Allport는 성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격은 개인 내의 여러 요소 간의 역동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성격은 정신적인 체계와 신체적인 체계 모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성격은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그 내에 또 다른 하위 시스템을 가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성격은 개인이 겉으로 표출하는 외현적인 행동, 사고, 감정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성격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여섯째, 성격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내적인 사고과정 모두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김현택 외 2003, 393). 이상에서 성격에 대하여 내린 과학적인 정의들이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 간의 차이’이며, 개인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학문이 바로 성격심리학이다.

한편, 성격이라는 개념과 자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질(temperament)과 품성(character)이 있다. 여기서 기질이란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개인 고유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기질, 활달하고 사교적인 기질, 활발하고 적극적인 기질과 같은 특징을 말한다. 이에 비해 품성이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 품성에는 사회적 판단이 개입된다(김현택 외 2003, 393-394).

헬렌 피셔²⁾는 성격을 품성(character)³⁾과

기질(temperature)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녀 역시 품성은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많은 문화적 요인들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기질은 태어날 때 이미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특정 기질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헬렌 피셔 지음, 윤영삼 이영진 옮김 2009).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성격적 특성 중 무엇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인지, 무엇이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⁴⁾를 보면 태어날 때 이미 상당히 많은 기질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인간행동유전학 분야에서 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적 특성들이 DNA와 연

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유전자의 무리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특성들이 모여 특정한 '행동증후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혹은 개인의 성격차이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정신역동적 관점,⁵⁾ 성향적 관점,⁶⁾ 인본주의적 관점,⁷⁾ 행동 및 사회적 학습관점,⁸⁾ 인지적 관점⁹⁾ 등 다양하다(노안영, 강영신 공저 2002). 각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프로이트는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¹⁰⁾로서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를 들고, 이들

-
- 2) 헬렌 피셔(Helen Fisher, Ph.D)는 럿거스대학의 인류학 연구교수이며, 사랑과 애착의 본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이다. 매치컴(Match.com)의 자회사인 케미스트리닷컴(Chemistry.com)의 과학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녀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사람들의 성격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탐험가, 건축가, 지휘관, 형상가라고 하는 네가지의 성격유형을 제시하였다.
 - 3) 헬렌 피셔의 원저 "Why Him? Why Her?"의 번역서인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서는 character를 인성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의미는 앞서 설명한 품성과 같다고 보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 임의로 품성이라고 하였다.
 - 4) 그 대표적인 연구가 1970년대에 실시된 미네소타 쌍둥이 연구(Minnesota Twin Study)이다. 따로 자란 일란성 쌍둥이들이 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점이 여전히 같은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춘 이 연구에서 보고한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가 대프니와 바바라라는 여자 쌍둥이의 경우인데 이들은 태어난 후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하거나 말을 조금만 비틀어도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등 흡사한 성향을 보여 깔깔쌍둥이(giggle twins)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 토마스 부차드(Thomas Bouchard)는 1984년에 그간의 쌍둥이 연구와 양육연구를 통하여 볼 때 특히 전통에 대한 태도, 권위에 기꺼이 수긍하는 정도, 공격성, 남을 이끌고자 하는 욕망,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 등은 유전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일반적으로 아이가 자라는 가족이나 환경은 성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 5)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융의 분석심리학, 호나이의 신경증적 성격이론,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머레이의 욕구 및 동기이론, 프롬의 성격유형,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론 등.
 - 6) 울포트의 특질이론, 케텔의 특질이론, 아이젠크의 생물학적 유형론 등.
 - 7)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접근론, 로저의 인간중심 접근론, 실존주의적 접근 등.
 - 8) 스키너의 이론, 로터의 사회적 학습이론, 반두라의 사회적 인지이론 등.
 - 9) 켈리의 개인 구성개념 이론, 엘리스와 벡의 인지적 성격이론 등.
 - 10) 원초아는 성격 중에서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구성성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쾌락원칙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며, 반사적이고 일차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는 외부현실과 초자아의 제한을 고려하여 원초아의 욕구를 표현하고 만족시키는 정신기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초자아는 프로이트의 성격구조에서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로서 사회규범과 기준이 내면화된 것을 말하며, 사회화 과정에서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았고, Adler는 개인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과 부모의 양육태도, 출생순위, 각 개인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성격차이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Murray의 개인의 욕구와 욕구를 이루거나 이룸을 방해하는 압력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성격형성, Kelly, Rogers 등으로 대표되는 현상학적 또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의 성격차이 발생론, 특성(traits)의 차이에 의해 개인들 간에 성격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Allport의 특성론,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등이 있다(김현택 외 2003, 402-417).

개인 내적인 요소들에 의한 성격형성을 강조한 다른 학자들과 달리 반두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중 많은 요소가 그가 받아들인 사회화와 학습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개인 내적요소와 환경적 요소간의 상호결정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런 관점에 따라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self reinforcement)¹¹⁾은 독서치료 과정에서도 유의해서 볼 개념이다. 그는 자기효능감을 얻게 되는 근원을 과거의 실제경험, 대리경험, 좋아하는 사람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언어적 설득, 생리적 각성을 들었는데 독서치료는 치유적 책읽기와 글쓰기, 말하기의 과정에서 반두라가 주장한 자기효능감을 얻게 되는 근원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 개념과 독서치료의 관계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2.2 성격유형과 검사방법

사물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성격을 범주화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이를 특성 접근(trait approach)이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밝히고, 비교하기 위하여 특정 용어(다정한, 공격적인, 정직한 등)로 사람들을 측정하고 명명하며 분류하는데, 이처럼 성격을 어떤 틀에 고정시키고 유형화시키려는 연구는 주로 심리학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람의 성격은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Hippocrates는 체액론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안범희 2009, 253-257). Jung은 성격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지향하는 태도와 세상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능을 토대로 이들 간의 결합에 의하여 여덟가지 성격유형¹²⁾을 제시하였다. Myers는 용의 이러한 성격유형론에 기초를 두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인간의 성격특성을 열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검사지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MBTI 검사지이다(안범희 2009, 125-136). 신프로이트

부모의 통제에서 자아통제로 바뀔 때 초자아는 비로소 완전한 형상을 갖출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각 단계 별로 나타나는 이들 3요소 간의 갈등구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해했는가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 11)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유형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 감정을 나타내는 자신감(self esteem)과는 구별된다.
- 12) 태도로 외향성과 내향성을, 기능으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들었으며, 이들 간의 결합에 의하여 내향사고형, 외향사고형, 내향감각형, 외향감각형, 외향감정형, 내향감정형, 내향직관형, 외향직관형으로 나누었다.

과의 학자로 분류되는 Fromm은 인간의 성격을 수용적, 착취적, 저축적, 매매적, 생산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람의 성격은 이 다섯가지 유형중의 하나이거나 그 유형의 혼합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성격유형론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Eysenck는 성격의 기본차원으로 내향성-외향성(E), 신경증성향(N), 정신병 성향(P)의 세 유형을 제시하고 왜 이러한 성격차원들이 나타나는지 의문을 갖고 추적한 결과 위에서 제시한 성격의 세차원은 문화에 관계없이 확인되고, 강한 유전적 요소가 존재하며, 진화론적 증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그는 초기의 연구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체액을 중심으로 설정한 네가지 기본적인 기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천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연구한 결과 성격에는 내향성-외향성과 안정성-불안정성 차원이 있으며 이는 네기질설과 맞물려 여러 차원의 성격유형이 성립된다고 확신한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성격유형과 떨어져 존재하는 제3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신병 성향을 추가함으로써 성격에 대한 3차원적 분류이론을 확립한다. 1937년에 성격심리학의 고전인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을 출간함으로써 성격심리학의 창시자로 꼽히게 된 Allport는 특질을 기본으로 한 성격유형과 함께 건강한 성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Allport, Eysenck, Cattell 등의 특성접근법을 발전시킨 5대 요인 모델(Big Five Factors)이 성격의 특성구조를 본질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경증(N), 외향성(E), 개방성(O), 동조성(A), 신

중함(C)으로 대표되는 Big Five의 특성들을 기반으로 각 특성들을 대조¹³⁾시켜 만든 "5대 성격요인 형용사 검목표"는 성격을 측정하는데 쓰인다(안범희 2009, 258-290).

3.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

3.1 성격검사로서의 에니어그램의 특징

성격에 대한 심리학에서의 과학적 정의를 빌려오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성별과 문화, 세대에 관계없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데 있어서 성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격유형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과거의 일을 다루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기뻐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성격적 장단점을 알고 보강시켜 나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역대 심리학자들의 성격에 관한 이론들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며, 심리학적 측정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지능 이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 기능과 특성을 평가하려는 많은 시도들도 마찬가지로 욕구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성격

13) 내향성 대 외향성, 적대성 대 동조성, 방향의 결여 대 신중함, 감정적 안정 대 신경증, 경험에 대한 폐쇄성 대 개방성.

과 적응력을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성격과 적응력을 평가하는 기법은 매우 다양하고, 각각 상이한 이론적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검사자료와 실시절차도 각기 다르다. 이렇게 복잡한 성격검사의 선구는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Kraepelin(1892)의 자유연상검사이며, 여러 측정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벤토리형 성격검사의 효시는 1차 세계대전동안에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전형검사(screening test)로 개발된 Woodworth(1920)의 개인자료 기록지이다. 인벤토리형 성격검사로 MMPI, EPPS 등 많이 있지만 임상환자가 아닌 정상인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CPI, MBTI, NEO-PI, PAI 등이 있다(김영환, 문수백, 홍상황 공저 2005, 255-262).

특히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관한 Jung의 심리적 유형론을 근거로 Myers와 Briggs가 만든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것은 18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향성-내향성,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으로 구성된 4개 차원의 점수를 조합하여 열여섯개의 심리적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채점방식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하게 된다. 채점 결과 ISTJ, INFP, ESTP, ENTJ 등으로 조합되어 나타나는 열여섯개의 유형은 성격유형에 따라서 상이한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는 과정을 결합하여 보여주는 것이므로 개인의 심리유형을 알게 되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김영환, 문수백, 홍상황 공저 2005, 267-272).

그러나 이들은 학문적 관점에서 논한 것이 대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에니어그램은 인벤토리형 검사지로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수도 간편하게 낼 수 있고, 각 성격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을 짚어내어 개혁가, 예술가, 탐구자, 평화주의자 등 일상용어로 명명한 점도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장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에니어그램 검사지를 활용하여 성격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독서성향 및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별도의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3.2 에니어그램의 역사와 성격유형별 특성

에니어그램(enneagram)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고대로부터 내려온 여러 종교적 전통의 영적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심리학과 결합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되었다. 에니어그램이라는 말의 어원은 아홉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니아(ennea)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라모스(grammos)로 여기에서는 아홉가지로 이루어진 인간의 성격유형과 그 유형들의 연관성을 표시한 기하학적 도형을 가리킨다.

에니어그램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B.C 2500년에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고대그리스 사상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을 아홉 가지로 나누기 시작한 것은 A.D 4세기 경으로 추정되지만, 에니어그램과 아홉개의 성격유형을 결합시킨 것은 불과 수십년 전이라고 한다.

George Ivanovich Gurdjieff는 에니어그램

의 상징을 현재의 서구사회에 도입하는데 공헌을 세웠으며 오랫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에니어그램의 상징에 대한 이론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에니어그램을 성격 유형론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데 에니어그램의 상징과 성격유형을 관련시켜 발전시킨 이는 Oscar Ichazo¹⁴⁾와 Claudio Naranzo¹⁵⁾이다. Ichazo는 1950년대 중반에 에니어그램 상징의 모든 자료들을 적절히 배열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니어그램의 기본적인 원형을 만들어 냈고, 1960년대에 Naranzo와 Ichazo가 성격유형의 연구를 위해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심리분류체계와 에니어그램을 연관시켰다. 이어서 1977년에 Don Richard Riso가 성격에 발전의 수준개념을 도입하고, 1991년에는 Russ Hudson이 Riso를 도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RHETI)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1996년에 개정되었다(돈 리처드 리소, 러스 허드슨 공저, 주혜명 옮김 2008, 21-40).

히포크라테스가 체액에 따라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누고, 융과 마이어스가 개인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네 쌍의 작용, 즉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에 따라 이들을 개인이 선호하는 주된 여덟 가지의 조합으로 나누었듯이 에니어그램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동기에 의해 아홉 개의 성격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에니어그램의 상징 속에서 이들 유형은 9번을 정점으로 하여 원의 원주 위에 시계방향을 따라 1번부터 아홉 개의 점

으로 배열되고 별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들 아홉 개의 성격유형은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묶여 분류될 수 있다. 즉 삶의 갈등을 어느 신체부위의 에너지를 통해서 해결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지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신체의 세 부위 - 감정의 중심인 가슴, 정신적 중심이 있는 머리, 성적이고 본능적인 것의 중심인 장 - 사용에 의해 감정형(2, 3, 4번 유형), 사고형(5, 6, 7번 유형), 본능형(8, 9, 1번 유형)으로 분류한다.¹⁶⁾ 같은 부위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좀 더 쉬운 반면, 다른 부위의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 조화로운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리처드 로어, 안드레아스 에베르트 지음, 이화숙 옮김 2006).

에니어그램상의 성격유형별 특성을 보면, 가슴을 사용하는 감정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접촉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2번 유형은 남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3번 유형은 성취욕이 강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따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4번 유형은 낭만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며 독창적으로 보여지기 위

14) 자아실현으로 이끌어주는 집중프로그램을 개발한 아카조는 이 강좌에서 에니어그램을 가장 먼저 가르쳤으며, 아홉가지 성격유형을 '자아고착'이라고 불렀다.
 15) 게슈탈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명해진 심리치료가임.
 16) 독일계 미국인 정신분석가인 Karen Honey의 가설에 의하면 인간의 유형은 삶의 갈등을 타인을 향하는 방법(가슴 사용), 타인과 떨어져있는 방법(머리 사용), 타인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방법(장 사용)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해 노력한다. 머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고형의 주된 문제는 두려움이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은 각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 그룹에 속하는 5번 유형은 관찰자로 표현되며, 자기 내면의 원천에 의존한다. 또한 지식과 혼자 있는 것에서 안전을 도모한다. 6번 유형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나 권위를 가진 존재에게 인정받는 것, 혹은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공포를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7번 유형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로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들은 두려움을 포함해 불쾌한 감정을 피한다. 장을 사용하는 본능형의 주된 문제는 분노로서 8번 유형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9번 유형은 평화주의자로 수용적이며 자신의 분노와 접촉하지 않는다. 1번 유형은 완벽주의자로 분노를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억누르려고 노력한다(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지음,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2006, 9-15). 이상 아홉개의 성격유형과 세 그룹의 성격적 특성을 보면 다음의 <표 1>,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¹⁷⁾

한편, 아홉개의 유형들은 주된 성격유형에 속한 두 개의 부속유형¹⁸⁾과 세 개의 본능적인

변형에 따라 같은 성격유형이라도 다르게 성격이 표현될 수 있으며, 발달수준에 따라서도 그렇다.¹⁹⁾ 발달수준에 따라 같은 유형이라도 다르게 성격이 표현된다(리처드 로어, 안드레아스 에베르트 지음, 이화숙 옮김 2006 / 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지음,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2006). 그리고 자신의 주된 유형과 선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성격유형이 또 있는데 에니어그램에서는 이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해준다.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시각에 의한 자세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래의 성격에 날개와 화살표의 긍정적인 특성을 받아들여 통합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지음,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2006). 그리고 이러한 에니어그램상의 성격적 특성을 독서치료에서 이용하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성격유형과 독서성향의 상관성이 밝혀진다면 에니어그램에서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유형의 긍정적인 특성을 자신의 성격에 통합할 수 있는 독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방적인 차원의 독서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17) <표 1>, <표 2>는 백유현, 안인숙이 에니어그램 강좌에서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자료로 만들어 준 것을 연구자 임의로 조정 변형한 것임. <<http://www.happynara.org>> (2010.7.3검색) 참고.

18) 주된 성격유형을 몸통이라고 하며, 부속유형은 몸통 양 옆의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에니어그램에서는 이것을 날개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통 양 옆에 붙어있는 날개를 사용하여 자신을 많이 표현하는데 어떤 쪽의 날개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유형이라도 다르게 성격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된 몸통이 1번인 유형이라면 부속날개로 2번과 9번을 쓸 수 있는데 2번을 많이 쓰면 자신의 느낌을 더 많이 표현하고 9번을 쓰면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지음,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2006).

19) 인간행동의 동기가 되는 세 개의 주요한 본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보존본능, 사회적 본능, 일대일 본능 (혹은 성적 본능이라고 함)이 있다.

〈표 1〉 에니어그램의 아홉개 성격유형별 특성

유형	핵심	별칭	특징	기능	고착된 정신적 습관	함정 유혹 집착	회피 행동	방어 기재	자아 이미지	이상화	덕목 장점
2	감정형	협조자	모성애적 유형 소유욕이 강한 조종하는 성격	감정이입에 강하고 이타주의적임	친절 아첨	도움 봉사	숨겨진 욕구	자신의 필요여 압	도움	없음	겸손 겸허
3		성취가	성공지향적, 실용주의적, 자기도취적, 자기확신에 차있고, 야망이 있고 적대적 성격	자기존중 자기개발	허영심	효율성 유능	실패	일과 자 신을 동 일시	성공	유능	진실 정직 성실
4		예술가	내면적이고 수줍은 유형, 개인주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우울한 성격	자의식 예술적 창의성	우울함	고유함과 독특함을 추구	평범함	인위적 예술적 승화	남과 다름	독특	균형 평안
5	사고형	관찰가	지적이고 분석적인 유형으로 통찰적, 독창적임. 공포심이 많은 유형으로 괴짜로 보임	열린마음 독창적사고	인색함	지식	공허	후퇴 칸막음	통찰	영리	초연함 애착 없음
6		충성가	의무적, 전통적인 유형, 책임감, 의존적 성향 매사 준비하는 성격	동일시와 사회 협력	소심하고 겁쟁이 형, 의심	안전	일탈 의심 불신	투사 희생양	의무	충성	용기
7		낙천가	극도로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유형, 과도하게 열정적인 성격	열정 실용적 행동	계획	이상주의	고통	합리화 즐거운 계획과 환상	행복	낙천	절제 침착 맑은 정신
8	본능형	지도자	강력하고 지배하는 유형, 자기신념, 단호하고 독재적인 성격	자기주장 지도성	복수	정의를 위 한 투쟁	무력함 예속 허약	연약함 을 부정	강함	강함 의리	순수함 적절한 힘
9		중재자	태평하고 냉정한 유형, 수용적이고 믿음직함, 수동적, 억압적인 성격	수락성 수용성	나태함 자기가 없음	자기비하	갈등	도피 중독	만족	균형	행동 결단 추진력
1		완벽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형, 규범적, 완벽주의적, 편협한 성격	합리성 사회적 책임감	분노 후회 원망 판단	완전 완벽	분노	반응형 성 반동	올바름	정직	조용함 평정 평온 침착 인내

〈표 2〉 에너지의 중심에 따른 세개 성격유형별 특성

구분	감정형(가슴 중심)	사고형(머리 중심)	본능형(장 중심)
성격유형	2, 3, 4	5, 6, 7	8, 9, 1
에너지 중심	• 감정과 느낌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관계하는 이미지에서 얻음	• 사고(분석, 생각)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과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얻음	•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대항함으로써 얻음
초점	• 자아이미지-거짓된 자아와 자아 이미지에 대한 사랑	• 불안-전략과 신념들에 매임	• 경계-환경에 저항하고 환경을 통제하는 것
성격	• 사회 지향적 • 사교적, 인간중심 • 외향적 • 기분에 매달림 •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과거 중심적	• 시끄러운 마음, 따져보기 • 자기보전적 유형 • 사고, 지식중심 • 의심이 많음 • 내향적 • 미래 중심적	• 적대적, 성적본능 • 긴장 • 감정이 없는 듯함 • 짜증이 많음 • 현재에 저항 • 본능적 자발적 동시부여중심 •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임
무계중심	심장, 순환계	머리와 신경계	하복부(장), 소화계
관심사	• 인간중심적 • 권위와 이미지 • 거짓자아와 자아이미지 사랑 • 집착과 의존	• 삶의 미스터리 •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 • 전략과 신념	• 나의 의지와 힘의 정의 • 자기 이루고 싶은 일에 에너지 집중 • 환경저항과 통제
상황파악	• 타인 중심-타인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 • 직관적, 감정적	• 관찰과 대조, 분석 • 비교의 사고과정을 통해 파악	• 진행하는 일 •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을 조정하고 통제 • 타인을 통제
의사결정	•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에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 • 지금 나의 감정상태	• 자신의 판단과 사고체계에 따라 결정 • 이성적	• 당연과 의무, 원칙에 따라 결정 • 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유추적인 방식
의사소통	주변설명이 길다	차분하고 논리적이다	단도직입적이고 명령적임
욕구	사랑과 인간관계에 관심	존재, 명예에 관심	힘과 지배욕에 관심
문제	정체성과 적대감 (거짓된 자아정체성)	두려움과 불안정	분노와 억압 (긴장과 경계)
추구	이미지	안전	독립성
시간관점	과거	미래	현재
지배감정	수치심	두려움과 공포, 보전적임	분노와 답답함, 공격적임

4. 연구방법과 결과분석

4.1 가설과 자료의 수집

성격유형이 개인의 독서성향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성격유형에 따라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다.

1.1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며, 아홉개의 성격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1.2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은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상황, 자신의 고민이나 상황과 관련된 상황으로 분리되어 이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2. 성격유형에 따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다.

2.1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며, 아홉개의 성격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2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은 개인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 사회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 문화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로 나뉘어 이에 대한 치중의 정도가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2.3 개인적 적응에서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자주자립, 자기통제, 개성신장에 치중하는 정도가, 사회적 적응에서는 애정의 태도, 타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율의 실천, 민주적태도, 사회적공헌의 태도에 대한 치중의 정도가, 문화적 적응에서는 인생관확립, 과학적태도, 예술적태도, 종교적태도, 이상에의 접근에 치중하는 정도가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3. 성격유형에 따라 책을 읽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3.1 성격유형별로 음독, 묵독, 다독, 정독, 발췌독, 통독을 선호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성격유형을 알기 위한 검사지로 리소-허드슨의 성격유형분류지표²⁰⁾를 백유현과 안인숙이 다년간의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형시킨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지²¹⁾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서성향 및 행태를 알기위한 설문서는 책을 읽거나 읽고 싶어지는 상황에 대한 질문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발달과제에 대한 질문, 독서방식에 대한 질문, 인구통계학적 질문의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책을 읽고 싶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문은 국민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시스템상의 상황별독서목록 - 아동청소년편²²⁾에 나타난 상황을, 독서성향을 알기위한 것은 일본독서학회가 만든 '표준독서자료목록'에서 제시한 발달과제²³⁾를 참고하여 설문을 만들었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상황은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상황, 자신의 고민이나 성장과 관련된 상황으로 분류하여 모두 41개의 항목으로 만들었으며, 각각 설문 I에서 가군(1-14번), 나군(1-14번), 다군(1-13번)에 나타난 것과 같다.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

20) 돈 리처드 리소, 러스 허드슨지음; 주혜명 옮김, 2000. 『에니어그램의 지혜』, 서울: 한문화, 128, 163, 194, 229, 264, 298, 330, 364, 397.

21) <<http://www.happynara.org>> 2010. 7. 5 검색.

22) 한국도서관협회, 1999. 『상황별독서목록-아동 청소년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51-255.

23) 변우열, 2009, 『독서교육의 이해』, 서울: 조은글터, 613-617.

는 발달과업은 크게 개인적 적응, 사회적 적응, 문화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로 나뉘고, 개인적 적응(설문 II / 가군)에서는 육체적 건강의 습관(1-3번), 정신적 건강의 태도(4-7번), 자주자립의 태도(8-11번), 자기통제의 태도(12-15번), 개성신장의 태도(16-19번)를, 사회적 적응(설문 II / 나군)에서는 애정의 태도(1-4번), 타인에 대한 태도(5-8번), 사회적 규율의 실천(9-12번), 민주적 태도(13-16번), 사회적공헌의 태도(17-20번)를, 문화적 적응(설문 II / 다군)에서는 인생관과 세계관의 확립(1-4번), 과학적 태도(5-8번), 예술적 태도(9-12번), 종교적 태도(13-16번), 이상에의 접근(17-20번)을 측정하는 59개의 항목으로 마련되었다. 독서하는 방법²⁴⁾에 대한 질문은 설문 III의 1-6번이, 인구통계학적 질문은 설문 IV에 해당된다. 인구통계학적 질문 이외에 다른 항목은 모두 리커트 5단계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있다.

설문서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K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배부, 수집하였다. K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대학으로 10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전공에 따라 다른 독서성향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10개의 단과대학과 교양학부, 교직학부에 모두 설문서를 배부²⁵⁾하였으며, 학생들의 성의있는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강사에게 직접 설문서를 부탁하였다. 교강사마다 클래스의 규모가 다르고, 해당 시간에 출석한 학생들의 숫자도 출석부에 기재된 것과 달

라 배부된 설문서와 실제로 응답한 설문서의 부수 차이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회수된 응답지는 모두 826건이었다. 이중에서 모든 문항에 동일하게 응답한 11건을 제외하고 815건이 통계처리되었다.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항목에 대한 응답 자료가 등분산인 경우에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이분산인 경우에는 Brown-Forsythe와 Welch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경우에만 영가설을 기각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부터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3> 성별 응답자 수

	남자	여자	합계
빈도	317	498	815
퍼센트	38.9	61.1	100.0

<표 4> 전공 분야별 응답자 수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합계
빈도	292	313	210	815
퍼센트	35.8	38.4	25.8	100.0

<표 5> 세 가지 성격유형별 응답자 수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합계
빈도	417	205	193	815
퍼센트	51.2	25.2	23.7	100.0

24) 조미아. 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5) 인문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관광대학, 국제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이며, 응답자의 전공은 인문대학과 예술대학 소속의 학과는 인문과학으로,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관광대학, 국제대학 소속의 학과는 사회과학으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학 소속의 학과는 자연과학으로 분류하였다.

〈표 6〉 아홉 가지 성격유형별 응답자 수

	2	3	4	5	6	7	8	9	1	합계
빈도	192	194	31	102	35	68	26	68	99	815
퍼센트	23.6	23.8	3.8	12.5	4.3	8.3	3.2	8.3	12.1	100.0

이상의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고, 전공분야별 응답자 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자연과학 분야 전공자의 비율이 조금 낮다. 응답자를 세 개의 성격유형별로 보면 감정형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형과 본능형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감정형에서도 2번과 3번 유형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5번과 1번 유형이 많다.

4.2 성격유형과 독서성향의 상관성

4.2.1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 검증

1)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개관
 대학생들은 언제 책을 읽고 싶어할까? 그리고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은 성격유형별 특히 감정형과 사고형, 본능형으로 차이가 있을까? 9개의 성격유형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황을 크게 세가지 -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 시공간적 상황, 자신의 고민이나 성장과 관련된 상황-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개관은 각각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면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싶거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을 때(욕구-4) 가장 책을 읽고 싶어했으며, 혼자 있고 싶을 때(욕구-13) 역시 책을 읽고 싶어진다고 답하였다. 반면에 애국심

을 느끼고 싶어서(욕구-8) 책을 읽고 싶어진다는 경향은 매우 낮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싶다는(시공-9) 응답자의 반응은 낮았지만 한밤중에 잠자고 싶어서(시공-13) 책을 읽는다는 반응은 이것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표 7〉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별 응답 결과

항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욕구-1	815	2.38	1.294
욕구-2	815	3.16	1.270
욕구-3	815	2.83	1.341
욕구-4	814	3.53	1.241
욕구-5	815	2.31	1.255
욕구-6	815	2.44	1.262
욕구-7	815	2.34	1.317
욕구-8	815	1.76	1.068
욕구-9	814	2.84	1.410
욕구-10	815	3.15	1.359
욕구-11	813	2.41	1.281
욕구-12	815	2.94	1.378
욕구-13	815	3.36	1.341
욕구-14	815	2.79	1.458

혼자 쉬고 있거나(시공-5) 심심할 때(시공-7), 시험이 끝나서(시공-6) 책을 읽겠다는 반응이 높았으며, 입시나 도모하는 큰 일에 실패했을 때(시공-10) 책을 읽겠다는 반응은 예상과 달리 응답의 정도가 낮았다. 이와 유사한 반응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표 9〉에서 보면 앞의 두 상황군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모든 문항에 대하여 평

균치가 3(보통)을 밑돌고 있다. 특히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고민-2), 잘못을 저질렀을 때(고민-11)가 몹시 낮게 나타났다. 결국 학생들은 긍정적인 감정상태에서 편안한 시간과 한적한 공간을 즐기기 위하여 책을 읽고 싶어하는 반면 고민이나 진로, 성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시간 및 공간 상황별 응답 결과

항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시공-1	814	3.15	1.331
시공-2	815	2.43	1.283
시공-3	815	3.09	1.322
시공-4	815	3.25	1.337
시공-5	815	3.33	1.292
시공-6	815	3.27	1.386
시공-7	815	3.32	1.248
시공-8	814	2.94	1.312
시공-9	815	1.67	1.094
시공-10	815	1.85	1.208
시공-11	815	2.35	1.266
시공-12	815	2.22	1.263
시공-13	815	2.41	1.379
시공-14	815	2.43	1.410

〈표 9〉 고민이나 성장과 관련된 상황별 응답 결과

항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고민-1	813	2.54	1.316
고민-2	814	1.81	1.098
고민-3	815	2.83	1.398
고민-4	815	2.63	1.334
고민-5	814	2.21	1.245
고민-6	815	2.41	1.358
고민-7	815	2.17	1.294
고민-8	815	2.47	1.396
고민-9	814	2.05	1.244
고민-10	815	2.11	1.266
고민-11	815	1.75	1.058
고민-12	815	2.31	1.362
고민-13	814	2.39	1.368

2)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에 대한 성격 유형별 차이 검증

(1) 세 가지 성격유형별 분석결과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분산분석 결과 세 가지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유의하다고 나타난 것은 욕구 1부터 6까지와 12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즉 대학생들이 가족 혹은 친구에 대한 사랑이나 미움 등의 감정을 느낄 때(욕구-1), 무언가 베풀 감동을 받고 싶을 때(욕구-2),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욕구-3), 마음의 여유나 차분함을 느끼고 싶을 때(욕구-4), 유년시절이나 고향이 그리울 때(욕구-5), 순수해지고 싶을 때(욕구-6), 자신을 돌이켜 보고 싶을 때(욕구-12) 책을 읽고 싶어하는 강도가 감정형과 사고형, 본능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틸이나 애국심을 느끼고 싶다는 상황(욕구 7, 8)에서 책을 읽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는 정도는 세 유형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차이도 보이지 않고 있다.

(2) 아홉 개 성격유형별 분석결과

〈표 11〉과 〈표 12〉는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이 9개 성격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와 9가지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 사후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는 성격유형 쌍을 확인해본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3번 유형(6개 항목), 2번 유형(4개 항목), 4번 유형(4개 항목)으로 모두 감정형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5번 유형과 짝을 이루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이 9번 유형과 짝을 이루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그리워하는

〈표 10〉 성격유형(3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

성격유형 항목	평균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ANOVA	Welch	Brown-Forsythe	
욕구-1	2.49	2.17	2.36	2.38	.012			○
욕구-2	3.33	2.90	3.06	3.16	.000			○
욕구-3	3.09	2.53	2.60	2.83		.000	.000	○
욕구-4	3.64	3.37	3.47	3.53		.026	.030	○
욕구-5	2.49	2.09	2.15	2.31	.000			○
욕구-6	2.61	2.22	2.29	2.44	.000			○
욕구-7	2.43	2.18	2.31	2.34	.066			
욕구-8	1.81	1.60	1.81	1.76		.040	.061	
욕구-9	2.88	2.84	2.76	2.84	.616			
욕구-10	3.19	3.18	3.04	3.15	.403			
욕구-11	2.52	2.30	2.30	2.41	.051			
욕구-12	3.12	2.67	2.85	2.94	.000			○
욕구-13	3.42	3.24	3.37	3.36	.298			
욕구-14	2.76	2.82	2.82	2.79	.858			

* 등분산인 경우는 ANOVA, 이분산인 경우는 Welch와 Brown-Forsythe의 검정을 수행함.

** 유의 수준은 0.05.

〈표 11〉 성격유형(9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

성격유형 항목	2	3	4	5	6	7	8	9	1	전체
욕구-1	2.33	2.60	2.84	2.14	2.03	2.28	2.54	2.21	2.41	2.38
욕구-2	3.28	3.32	3.68	2.69	2.97	3.19	2.85	3.01	3.15	3.16
욕구-3	2.97	3.15	3.39	2.38	2.77	2.63	2.31	2.37	2.83	2.83
욕구-4	3.53	3.76	3.65	3.24	3.31	3.59	2.88	3.54	3.57	3.53
욕구-5	2.38	2.60	2.52	1.87	2.34	2.28	2.04	2.01	2.26	2.31
욕구-6	2.55	2.60	3.00	1.97	2.31	2.56	2.42	2.18	2.33	2.44
욕구-7	2.41	2.47	2.39	2.06	2.17	2.35	2.35	2.53	2.15	2.34
욕구-8	1.78	1.82	1.87	1.52	1.66	1.71	2.27	1.74	1.74	1.76
욕구-9	2.78	2.94	3.16	2.68	2.91	3.04	2.73	2.63	2.86	2.84
욕구-10	3.18	3.17	3.42	2.94	3.57	3.32	2.69	2.96	3.18	3.15
욕구-11	2.51	2.47	2.87	2.17	2.60	2.34	2.54	2.18	2.32	2.41
욕구-12	3.06	3.13	3.39	2.58	2.74	2.78	3.00	2.54	3.03	2.94
욕구-13	3.41	3.40	3.68	3.08	3.37	3.43	2.88	3.44	3.44	3.36
욕구-14	2.77	2.77	2.68	2.86	2.77	2.78	2.27	2.99	2.86	2.79

〈표 12〉 성격유형(9집단)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 자아의 욕구 및 심리적 상황

항목	성격유형	차이가 유의한 성격유형 쌍*
욕구-1		없음
욕구-2		2>5, 3>5, 4>5
욕구-3		2>5, 3>5, 4>5, 2>9, 3>9, 4>9
욕구-4		3>5
욕구-5		2>5, 3>5, 3>9, 4>5
욕구-6		2>5, 3>5, 4>5
욕구-12		3>5

* 유의 수준은 0.05. 등분산인 경우는 Tukey HSD, 이분산인 경우는 Tamhane 검정을 수행함.

상황(욕구-3)에서는 감정형 모두 5번이나 9번보다 책을 읽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5번 유형(6개 항목)과 9번 유형(2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 9개 성격유형 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이 위의 세 유형별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 중 자아 욕구 및 심리적 상황에 속하는 항목에서만 세 유형간 차이를 보인 항목이나 9개 성격유형간 차이를 보인 항목이 똑같이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을 끌지만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자아욕구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질문항목이 성격과 가장 관련이 있고 유사한 상황으로 제시된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3) 시간 및 공간 상황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 검증

(1) 세 가지 성격유형별 분석결과

〈표 13〉에서 보면 감정형과 사고형, 본능형

유형별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시공간 상황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1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만 나타났다. 더울 때나 추울 때/ 비나 눈이 올 때/ 꽃이 피거나 단풍이 물들 때(시공-2), 독서하기 좋은 계절(시공-3), 화장실(시공-14)이 그것이다. 개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검정을 수행한 결과, 감정형은 시공-3에서는 사고형과 본능형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시공-2와 시공-14에서도 감정형이 사고형에 대해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2)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분석결과

〈표 14〉와 〈표 15〉는 9가지 성격유형별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위하여 분산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상황은 시공-2,3,10,11로 나타났다. 덥거나 추울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꽃이 피거나 단풍이 들 때 혹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책을 읽고 싶어하는 것은 독서와 계절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시공-2, 3). 반면에 입시나 내가

〈표 13〉 성격유형(3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시간 및 공간 상황

항목	성격유형	평균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ANOVA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시공-1		3.19	3.07	3.13	3.15	.547	
시공-2		2.57	2.34	2.23	2.43	.004	○
시공-3		3.28	2.87	2.91	3.09	.000	○
시공-4		3.30	3.15	3.26	3.25	.425	
시공-5		3.31	3.29	3.43	3.33	.484	
시공-6		3.34	3.13	3.26	3.27	.210	
시공-7		3.36	3.21	3.35	3.32	.324	
시공-8		2.98	2.84	2.94	2.94	.458	
시공-9		1.66	1.71	1.62	1.67	.710	
시공-10		1.79	1.98	1.86	1.85	.185	
시공-11		2.35	2.30	2.41	2.35	.700	
시공-12		2.30	2.10	2.16	2.22	.133	
시공-13		2.49	2.40	2.24	2.41	.112	
시공-14		2.57	2.21	2.35	2.43	.009	○

* 14항목 모두가 등분산이었으므로 ANOVA를 수행하였음.

** 유의 수준은 0.05.

〈표 14〉 성격유형(9집단)별 평균 - 시간 및 공간 상황

항목	성격유형	2	3	4	5	6	7	8	9	1	전체
		시공-1		3.13	3.27	3.13	2.99	3.11	3.18	2.85	3.35
시공-2		2.42	2.70	2.71	2.27	2.29	2.47	2.08	2.21	2.28	2.43
시공-3		3.22	3.32	3.32	2.77	2.91	3.00	2.35	3.16	2.89	3.09
시공-4		3.30	3.36	2.94	3.03	2.97	3.43	2.73	3.46	3.27	3.25
시공-5		3.13	3.48	3.35	3.15	3.23	3.53	3.27	3.59	3.36	3.33
시공-6		3.30	3.37	3.35	3.11	3.03	3.21	2.69	3.40	3.32	3.27
시공-7		3.35	3.38	3.35	3.22	3.20	3.21	2.96	3.78	3.16	3.32
시공-8		2.96	3.02	2.90	2.62	2.97	3.12	2.50	3.06	2.98	2.94
시공-9		1.56	1.73	1.90	1.63	1.89	1.75	1.88	1.50	1.64	1.67
시공-10		1.64	1.82	2.48	2.03	2.09	1.84	2.04	1.87	1.81	1.85
시공-11		2.19	2.49	2.45	2.44	2.31	2.09	2.04	2.71	2.30	2.35
시공-12		2.24	2.32	2.55	2.07	2.11	2.15	2.38	2.07	2.15	2.22
시공-13		2.48	2.49	2.52	2.20	2.69	2.57	2.19	2.18	2.29	2.41
시공-14		2.49	2.66	2.45	2.08	2.31	2.37	2.19	2.50	2.28	2.43

〈표 15〉 성격유형(9집단)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 시간 및 공간 상황

항목	성격유형	차이가 유의한 성격유형 쌍*
시공-2		없음
시공-3		2 > 8, 3 > 5, 3 > 8
시공-10		없음
시공-11		없음

* 유의 수준은 0.05. 등분산인 경우는 Tukey HSD, 이분산인 경우는 Tamhane 검정을 수행함.

도모하던 큰 일에 실패했을 때(시공-10)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 평균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유형 간에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휴강이나 공강(시공-11)시간 역시 일하던 시간 중에 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 역시 흥미롭다.

〈표 15〉는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 사후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는 성격유형 쌍을 확인해본 결과이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시공-3) 항목에서 3번 유형이 5번 유형 및 8번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2번 유형은 8번 유형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신의 고민이나 성장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 검증

(1) 세 가지 성격유형별 분석결과

대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상황에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격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분산분석 결과 〈표 16〉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 성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감정이 메말랐다고 여길 때(고민-1), 도무지 공부

가 안될 때(고민-3), 슬럼프에 빠졌을 때(고민-8)라고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 대하여 집단 쌍간의 차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고 Tukey HSD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민-1에 대해서는 감정형 집단이 나머지 두 성격 유형 집단에 비해서, 고민-8에 대해서도 감정형 집단이 본능형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민-3에 대한 것은 감정형 집단이 사고형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감정이 메말랐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와 같은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감정형이 높은 반응을 보이는데 공부가 안될 때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사고형 유형이 감정형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분석결과

자신의 고민이나 성장과 관련된 상황에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정도가 9개 성격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분산분석한 결과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감정이 메말랐을 때(고민-1), 슬럼프에 빠졌을 때(고민-8), 한없이 우울할 때(고민-13)이다(표 17, 표 18 참조).

〈표 16〉 성격유형(3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고민/성장 관련 상황

항목	성격유형	평균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ANOVA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고민-1		2.74	2.33	2.33	2.54	.000	○
고민-2		1.83	1.79	1.79	1.81	.865	
고민-3		2.93	2.59	2.89	2.83	.013	○
고민-4		2.73	2.48	2.58	2.63	.067	
고민-5		2.29	2.04	2.21	2.21	.057	
고민-6		2.45	2.37	2.35	2.41	.627	
고민-7		2.26	2.08	2.06	2.17	.120	
고민-8		2.58	2.40	2.30	2.47	.048	○
고민-9		2.09	1.99	2.04	2.05	.598	
고민-10		2.15	2.07	2.04	2.11	.531	
고민-11		1.79	1.69	1.72	1.75	.510	
고민-12		2.39	2.20	2.27	2.31	.251	
고민-13		2.45	2.29	2.36	2.39	.367	

* 13항목 모두가 등분산이었으므로 ANOVA를 수행하였음.

** 유의 수준은 0.05.

〈표 17〉 성격유형(9집단)별 평균 - 고민/성장 관련 상황

항목	성격유형	2	3	4	5	6	7	8	9	1	전체
		고민-1		2.65	2.79	2.97	2.31	2.56	2.24	2.19	2.15
고민-2		1.79	1.85	1.97	1.78	1.91	1.72	1.88	1.81	1.74	1.81
고민-3		2.92	2.88	3.26	2.57	2.66	2.57	2.77	3.04	2.82	2.83
고민-4		2.68	2.70	3.26	2.47	2.66	2.40	2.23	2.57	2.67	2.63
고민-5		2.25	2.27	2.68	2.08	2.26	1.87	2.08	2.16	2.27	2.21
고민-6		2.41	2.41	2.94	2.51	2.46	2.10	2.15	2.12	2.57	2.41
고민-7		2.22	2.23	2.68	1.98	2.43	2.06	1.96	2.01	2.12	2.17
고민-8		2.42	2.66	3.10	2.49	2.31	2.32	2.23	1.99	2.53	2.47
고민-9		1.99	2.08	2.74	2.02	2.20	1.82	2.00	2.00	2.07	2.05
고민-10		2.05	2.16	2.74	2.13	2.20	1.91	2.12	1.82	2.17	2.11
고민-11		1.77	1.77	2.03	1.67	1.91	1.60	1.85	1.65	1.74	1.75
고민-12		2.43	2.28	2.81	2.24	2.43	2.04	2.04	2.09	2.45	2.31
고민-13		2.61	2.22	2.90	2.35	2.57	2.04	2.27	2.29	2.43	2.39

〈표 18〉 성격유형(9집단)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 고민/성장 관련 상황

항목	성격유형	차이가 유의한 성격유형 쌍*
	고민-1	3 > 9
	고민-8	3 > 9, 4 > 9
	고민-13	없음

* 유의 수준은 0.05. 등분산인 경우는 Tukey HSD, 이분산인 경우는 Tamhane 검정을 수행함.

9가지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 사후검증을 통해 차이가 있는 성격유형 쌍을 확인해본 결과는 〈표 18〉에 나타난 것과 같다.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3번 유형(2개 항목)과 4번 유형(1개 항목)이다. 반면에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9번 유형(2개 항목)뿐이다. 9번 유형의 성격 특성에서 보면 자신의 마음이 아파도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음을 상기할 때 이와 같은 결과에 수긍이 간다.

4.2.2 책을 읽을 때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성격 유형별 차이 검증

1) 책을 읽을 때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반응 개관

성격유형별로 독서성향과 행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반응의 정도차이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은 개인적 적응, 사회적 적응, 문화적 적응별로 조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반응의 개관은 다음의 〈표 19〉, 〈표 20〉, 〈표 21〉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개인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인 것

은 자신의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항목(자주자립의 태도-2)이며, 과업별 모든 항목에서 평균치 3(보통)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주자립의 태도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다. 사회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에서는 타인에 대한 태도형성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3이상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 및 관용의 태도를 갖는다는 항목(타인에 대한 태도-2)에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는 종교적 태도영역만은 모두 3(보통)이하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에서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상에의 접근에 모두 높은 반응이 나왔으며 자신의 적성을 판단한다와 자신의 뜻을 세운다(이상에의 접근-1, 2)는 확연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개인적 적응 관련 발달과제에 대한 성격 유형별 차이 검증

(1) 세 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표 22〉에서 보면 개인적 적응 관련 발달과제에 대한 반응이 3개의 성격유형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한 결과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발달과제는 보건위생의 습관, 운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흥미(육체적 건강-1,2), 명랑한

〈표 19〉 개인적 적응 관련 발달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

항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육체적 건강-1	815	2.35	1.122
육체적 건강-2	815	2.72	1.275
육체적 건강-3	815	2.86	1.164
정신적 건강-1	815	3.25	1.129
정신적 건강-2	814	3.51	1.132
정신적 건강-3	815	3.49	1.141
정신적 건강-4	815	3.47	1.182
자주자립의 태도-1	815	3.47	1.138
자주자립의 태도-2	815	3.78	1.141
자주자립의 태도-3	815	3.61	1.136
자주자립의 태도-4	815	3.37	1.143
자기통제의 태도-1	815	3.05	1.257
자기통제의 태도-2	815	3.10	1.214
자기통제의 태도-3	814	2.83	1.201
자기통제의 태도-4	815	3.17	1.199
개성신장의 태도-1	815	3.20	1.151
개성신장의 태도-2	815	3.37	1.186
개성신장의 태도-3	815	2.89	1.246
개성신장의 태도-4	815	3.58	1.195

〈표 20〉 사회적 적응 관련 발달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

항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애정의 태도-1	814	3.26	1.174
애정의 태도-2	814	3.38	1.124
애정의 태도-3	815	3.05	1.167
애정의 태도-4	815	2.89	1.197
타인에 대한 태도-1	815	3.34	1.097
타인에 대한 태도-2	815	3.42	1.107
타인에 대한 태도-3	815	3.38	1.143
타인에 대한 태도-4	815	3.28	1.153
사회적 규율의 실천-1	815	3.09	1.184
사회적 규율의 실천-2	815	2.84	1.169
사회적 규율의 실천-3	813	2.96	1.156
사회적 규율의 실천-4	814	2.99	1.188
민주적 태도-1	815	2.85	1.233
민주적 태도-2	815	2.80	1.237
민주적 태도-3	815	2.53	1.184
민주적 태도-4	814	2.77	1.150
사회적 공헌의 태도-1	814	2.36	1.116
사회적 공헌의 태도-2	815	2.55	1.179
사회적 공헌의 태도-3	815	2.69	1.223
사회적 공헌의 태도-4	815	2.83	1.249

〈표 21〉 문화적 적응 관련 발달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

항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인생관/세계관의 확립-1	815	3.30	1.252
인생관/세계관의 확립-2	815	3.25	1.178
인생관/세계관의 확립-3	815	3.05	1.219
인생관/세계관의 확립-4	815	3.41	1.237
과학적 태도-1	815	3.59	1.245
과학적 태도-2	815	3.42	1.275
과학적 태도-3	815	3.15	1.186
과학적 태도-4	815	3.27	1.251
예술적 태도-1	815	3.02	1.254
예술적 태도-2	815	3.11	1.283
예술적 태도-3	815	2.95	1.343
예술적 태도-4	815	2.94	1.290
종교적 태도-1	815	2.44	1.243
종교적 태도-2	815	2.25	1.250
종교적 태도-3	815	2.23	1.258
종교적 태도-4	815	2.46	1.366
이상에의 접근-1	815	3.66	1.223
이상에의 접근-2	815	3.68	1.229
이상에의 접근-3	815	3.56	1.224
이상에의 접근-4	813	3.14	1.337

〈표 22〉 성격유형(3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개인적 적응 과제

항목	성격유형	평균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ANOVA	Welch	Brown-Forsythe	
육체적 건강-1		2.47	2.20	2.25	2.35	.006			○
육체적 건강-2		2.87	2.56	2.58	2.72	.004			○
육체적 건강-3		2.92	2.75	2.85	2.86	.221			
정신적 건강-1		3.41	3.04	3.11	3.25	.000			○
정신적 건강-2		3.61	3.35	3.46	3.51	.019			○
정신적 건강-3		3.63	3.32	3.36	3.49	.001			○
정신적 건강-4		3.60	3.22	3.47	3.47	.001			○
자주자립의 태도-1		3.62	3.25	3.37	3.47		.000	.000	○
자주자립의 태도-2		3.93	3.64	3.61	3.78		.001	.001	○
자주자립의 태도-3		3.77	3.41	3.50	3.61		.000	.000	○
자주자립의 태도-4		3.46	3.21	3.35	3.37	.040			○
자기통제의 태도-1		3.05	2.87	3.22	3.05	.021			○
자기통제의 태도-2		3.19	2.98	3.05	3.10	.091			
자기통제의 태도-3		2.91	2.60	2.90	2.83		.010	.009	○

항목	성격유형	평균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ANOVA	Welch	Brown-Forsythe	
자기통제의 태도-4		3.20	3.11	3.18	3.17	.664			
개성신장의 태도-1		3.28	3.00	3.25	3.20	.012			○
개성신장의 태도-2		3.45	3.22	3.35	3.37	.079			
개성신장의 태도-3		2.94	2.85	2.84	2.89	.580			
개성신장의 태도-4		3.67	3.42	3.56	3.58	.051			

* 등분산인 경우는 ANOVA, 이분산인 경우는 Welch와 Brown-Forsythe의 검정을 수행함.

** 유의 수준은 0.05.

태도, 유머의 이해, 자존심과 정서적 안정, 열등감의 극복(정신적 건강-1,2,3,4),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 갖기, 자신의 계획 실행용기,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자주자립의 태도-1,2,3,4), 욕구불만 통제, 규율바른 생활(자기통제의 태도-1,3), 자신의 태도반성(개성신장의 태도-1) 등이다.

(2)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개인적 적응 발달과제에 대한 3가지의 성격유형별 집단차이검증에서는 19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9개의 성격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1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개 성격유형별 집단차이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9개 성격유형별 차이검증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은 감정의 폭발자제(자기통제의 태도-2), 자신의 장단점 자각, 자기향상에 대한 의욕(개성신장의 태도 -2, 4)이다(표 23 참조).

〈표 24〉는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 사후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는 성격유형 쌍을 확인해본 결과이다.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3번 유형과 1번 유형(6개 항목), 2번 유형(4개 항목), 6번 유형(2개 항목), 4번

유형(2개 항목), 9번 유형(1개 항목)이다. 반면에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5번 유형(9개 항목), 9번 유형(3개 항목), 8번 유형(1개 항목)이다. 건강문제에 대한 것은 성격유형 쌍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많지 않은데 비하여 자주자립의 태도와 개성 신장의 태도에서는 네 개 항목 중 세 개 이상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 쌍이 많다. 특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자주자립의 태도-3)에서는 9번 유형이 감정형에 속하는 2, 3, 4번 유형 모두보다 낮고, 같이 본능형에 속하는 1번 유형과도 쌍을 이루어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행동을 늘 반성하는 태도(개성신장의 태도-1), 자신의 장단점 자각(개성신장의 태도-2), 자기 향상에 대한 의욕(개성신장의 태도-4)에서 5번유형이 타유형과 짝을 이루어 낮게 나타난 것도 역시 주목하게 된다. 평화주의자 9번의 화살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려움이 많고 우유부단한 6번 유형으로 회피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3번 유형처럼 자신감 있고 성취지향적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발달과업에 대한 9번 유형의 반응정도는 바로 스트레스 점을 향한 9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표 23〉 성격유형(9집단)별 평균 - 개인적 적응 과제

성격유형 항목	2	3	4	5	6	7	8	9	1	전체
육체적 건강-1	2.52	2.43	2.48	2.24	2.40	2.06	2.19	2.19	2.30	2.35
육체적 건강-2	2.82	2.93	2.77	2.24	2.91	2.87	2.88	2.51	2.55	2.72
육체적 건강-3	2.91	2.94	2.87	2.68	2.97	2.74	2.77	2.68	2.99	2.86
정신적 건강-1	3.46	3.38	3.29	2.97	3.17	3.09	3.08	3.06	3.15	3.25
정신적 건강-2	3.65	3.59	3.48	3.25	3.69	3.32	3.46	3.50	3.43	3.51
정신적 건강-3	3.64	3.60	3.81	3.32	3.43	3.26	3.31	3.19	3.48	3.49
정신적 건강-4	3.63	3.54	3.81	3.23	3.37	3.15	3.23	3.25	3.68	3.47
자주자립의 태도-1	3.53	3.73	3.58	3.19	3.40	3.26	3.19	3.13	3.59	3.47
자주자립의 태도-2	3.92	3.89	4.19	3.58	3.91	3.60	3.12	3.44	3.86	3.78
자주자립의 태도-3	3.69	3.81	3.97	3.30	3.71	3.41	3.46	3.10	3.78	3.61
자주자립의 태도-4	3.44	3.44	3.65	3.13	3.37	3.25	3.50	3.10	3.48	3.37
자기통제의 태도-1	3.04	3.01	3.35	2.73	3.09	2.99	3.35	2.90	3.41	3.05
자기통제의 태도-2	3.15	3.23	3.23	2.79	3.51	2.97	3.00	2.88	3.17	3.10
자기통제의 태도-3	2.88	2.95	2.87	2.41	2.83	2.76	2.69	2.66	3.11	2.83
자기통제의 태도-4	3.11	3.27	3.29	2.93	3.17	3.34	3.08	2.94	3.37	3.17
개성신장의 태도-1	3.28	3.25	3.55	2.92	3.09	3.07	3.04	2.91	3.55	3.20
개성신장의 태도-2	3.44	3.45	3.55	2.99	3.74	3.31	3.08	3.09	3.61	3.37
개성신장의 태도-3	2.87	2.99	2.97	2.64	3.31	2.93	3.00	2.81	2.82	2.89
개성신장의 태도-4	3.65	3.69	3.68	3.23	3.60	3.62	3.42	3.26	3.80	3.58

〈표 24〉 성격유형(9집단)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 개인적 적응 과제

성격유형 항목	차이가 유의한 성격유형 쌍*
육체적 건강-2	2 > 5, 3 > 5, 6 > 5
정신적 건강-1	2 > 5
정신적 건강-3	없음
정신적 건강-4	없음
자주자립의 태도-1	3 > 5, 9 > 5
자주자립의 태도-2	4 > 8, 4 > 9
자주자립의 태도-3	2 > 9, 3 > 5, 3 > 9, 4 > 9, 1 > 9
자기통제의 태도-1	1 > 5
자기통제의 태도-2	없음
자기통제의 태도-3	3 > 5, 1 > 5
개성신장의 태도-1	1 > 5, 1 > 9
개성신장의 태도-2	2 > 5, 3 > 5, 6 > 5, 1 > 5
개성신장의 태도-4	3 > 5, 1 > 5

* 유의 수준은 0.05. 등분산인 경우는 Tukey HSD, 이분산인 경우는 Tamhane 검정을 수행함.

다(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지음,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2006, 170-171). 관찰자인 5번 유형의 나쁜 상태는 자기 중심적이고 거만하고 고집이 세고 부정적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장단점을 자각하는 항목에서 낮은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5번 유형의 화살표는 8번과 7번을 향하고 있다. 8번은 에너지와 행동의 원천으로 5번 유형들에게 있어서 성장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7번을 향하게 되면 산만하고 재미만 추구할 수 있다(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지음,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2006, 91, 97-98)는 점을 감안하면 예방적

차원에서의 독서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적응 관련 발달과제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 검증

(1) 세 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표 25〉에서 보면 사회적 적응관련 발달과제에 대하여 3가지 성격유형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분산분석한 결과 성격유형 집단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발달과제는 국제적 협조의 의의를 이해(사회적 공헌의 태도-3)하는 것 뿐이다.

〈표 25〉 성격유형(3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사회적 적응 과제

항목	성격유형	평균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ANOVA	Welch	Brown-Forsythe	
애정의 태도-1		3.42	3.04	3.15	3.26	.000			○
애정의 태도-2		3.49	3.26	3.27	3.38	.020			○
애정의 태도-3		3.17	2.88	2.96	3.05	.006			○
애정의 태도-4		2.97	2.66	2.94	2.89	.008			○
타인에 대한 태도-1		3.46	3.15	3.28	3.34	.003			○
타인에 대한 태도-2		3.52	3.25	3.40	3.42	.017			○
타인에 대한 태도-3		3.50	3.14	3.38	3.38		.001	.002	○
타인에 대한 태도-4		3.36	3.08	3.30	3.28	.014			○
사회적 규율의 실천-1		3.14	2.89	3.19	3.09	.020			○
사회적 규율의 실천-2		2.90	2.62	2.95	2.84	.007			○
사회적 규율의 실천-3		3.01	2.74	3.08	2.96	.005			○
사회적 규율의 실천-4		3.07	2.73	3.09	2.99	.002			○
민주적 태도-1		2.87	2.63	3.02	2.85	.007			○
민주적 태도-2		2.90	2.50	2.92	2.80	.000			○
민주적 태도-3		2.59	2.26	2.66	2.53	.001			○
민주적 태도-4		2.89	2.56	2.72	2.77	.003			○
사회적 공헌의 태도-1		2.47	2.13	2.35	2.36	.002			○
사회적 공헌의 태도-2		2.66	2.35	2.51	2.55	.007			○
사회적 공헌의 태도-3		2.75	2.54	2.71	2.69	.122			
사회적 공헌의 태도-4		2.93	2.66	2.78	2.83	.030			○

* 등분산인 경우는 ANOVA, 이분산인 경우는 Welch와 Brown-Forsythe의 검정을 수행함.

** 유의 수준은 0.05.

(2)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표 26〉에서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사회적 적응관련 발달과제에 대하여 20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3가지 성격유형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반면, 9가지 성격유형별 분석에서는 11개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들과의 애정관계 형성(애정의 태도-1),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 및 관용의 태도, 타인에 대한 평등하고 공평한 태도, 존경과 감사의 태도(타인에 대한 태도-2,3,4), 도덕적 태도(사회적 규율의 실천-4), 민주주의 사회의 의미와 제도이해, 자유와 책임 및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해, 자치적인 능력확보와 지도성획득,

협력하는 태도로 사회생활의 안정과 향상도모(민주적 태도-1,2,3,4), 향토애, 민족적 자각과 애국심 확립(사회적 공헌의 태도-1,2) 등이 그렇다.

〈표 27〉은 아홉개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 사후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는 성격유형 쌍을 확인해본 결과이다.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3번 유형(6개 항목), 2번 유형(4개 항목), 1번 유형(4개 항목), 4번 유형(1개 항목)이다. 반면에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5번 유형(7개 항목)뿐이다. 성취욕이 강한 3번 유형은 다른 어느 유형

〈표 26〉 성격유형(9집단)별 평균 - 사회적 적응 과제

성격유형 항목	2	3	4	5	6	7	8	9	1	전체
애정의 태도-1	3.44	3.42	3.26	2.83	3.29	3.22	3.04	3.06	3.23	3.26
애정의 태도-2	3.46	3.53	3.39	3.20	3.37	3.31	3.00	3.40	3.25	3.38
애정의 태도-3	3.23	3.12	3.13	2.75	2.94	3.03	2.69	2.96	3.04	3.05
애정의 태도-4	3.05	2.89	3.03	2.57	2.91	2.68	2.88	2.90	2.99	2.89
타인에 대한 태도-1	3.46	3.42	3.68	3.09	3.37	3.13	3.35	3.21	3.32	3.34
타인에 대한 태도-2	3.58	3.46	3.55	3.13	3.51	3.31	3.00	3.40	3.51	3.42
타인에 대한 태도-3	3.46	3.53	3.55	3.14	3.14	3.15	3.00	3.44	3.43	3.38
타인에 대한 태도-4	3.34	3.37	3.42	3.06	2.91	3.19	3.04	3.10	3.51	3.28
사회적 규율의 실천-1	3.13	3.16	3.06	2.87	2.97	2.88	3.15	3.12	3.24	3.09
사회적 규율의 실천-2	2.85	2.98	2.65	2.67	2.60	2.56	2.96	2.90	2.98	2.84
사회적 규율의 실천-3	3.00	3.06	2.84	2.75	2.77	2.70	2.85	2.99	3.20	2.96
사회적 규율의 실천-4	3.03	3.11	3.03	2.60	2.86	2.87	2.88	3.03	3.18	2.99
민주적 태도-1	2.79	2.99	2.68	2.61	2.51	2.74	3.31	2.87	3.04	2.85
민주적 태도-2	2.80	3.01	2.81	2.45	2.37	2.63	3.19	2.71	2.99	2.80
민주적 태도-3	2.51	2.68	2.61	2.19	2.26	2.38	2.92	2.40	2.77	2.53
민주적 태도-4	2.88	2.91	2.84	2.42	2.71	2.69	2.77	2.57	2.81	2.77
사회적 공헌의 태도-1	2.52	2.46	2.29	2.01	2.49	2.13	2.50	2.15	2.45	2.36
사회적 공헌의 태도-2	2.70	2.66	2.45	2.28	2.54	2.35	2.62	2.29	2.63	2.55
사회적 공헌의 태도-3	2.74	2.74	2.81	2.48	2.63	2.57	2.69	2.50	2.86	2.69
사회적 공헌의 태도-4	2.93	2.89	3.23	2.51	2.89	2.76	2.73	2.72	2.84	2.83

〈표 27〉 성격유형(9집단)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 사회적 적응 과제

항목	성격유형	차이가 유의한 성격유형 쌍*
애정의 태도-1		2>5, 3>5
타인에 대한 태도-2		2>5, 4>5, 1>5
타인에 대한 태도-3		없음
타인에 대한 태도-4		없음
사회적 규율의 실천-4		3>5, 1>5
민주적 태도-1		없음
민주적 태도-2		3>5, 1>5
민주적 태도-3		3>5, 1>5
민주적 태도-4		2>5, 3>5
사회적 공헌의 태도-1		2>5, 3>5
사회적 공헌의 태도-2		없음

* 유의 수준은 0.05. 등분산인 경우는 Tukey HSD, 이분산인 경우는 Tamhane 검정을 수행함.

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또한 자신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3번 유형들의 성향이 사회적 적응에 관한 발달과제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족들과의 애정형성(애정의 태도-1), 도덕적 태도형성(사회적 규율의 실천-4), 자유와 책임 및 권리와 의무의 이해, 자치적인 능력확보와 지도성, 협력하는 태도로 사회생활의 안정도모(민주적 태도-2, 3, 4), 향토애 형성(사회적 공헌의 태도-1) 등이 그렇다. 반면에 이러한 과제들에 대하여 5번 유형이 다른 유형과 짝을 이루어 거의 모두 낮게 나타난 것도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의 5번 유형들의 모습인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내성적인 면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3번 유형들에 대한 독서치료 방안은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반면 지나치게 경쟁적이 되기 쉬운 3번의 화살표가 6번과 9번으로 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즉 3번 유형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려움이 많은 6번을

향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화주의자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지음,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2006, 55, 60-61)을 생각하여 9번으로 향할 수 있는 독서자료를 읽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4) 문화적 적응 관련 발달과제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 검증

(1) 세 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표 28〉에서 보면 문화적 적응관련 발달과제에 대하여 3가지 성격유형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분산분석한 결과 성격유형 집단별로 차이가 유의한 발달과제는 인생관/세계관의 확립과 이상에의 접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그렇게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에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흥미, 창의성과 연구하는 태도(과학적 태도-2,4)에서, 예술적 태도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애호(예술적 태도-1)에서, 종교적 태도에서는 종교에 관한 지식획득(종교적 태도-4)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8〉 성격유형(3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문화적 적응 과제

항목	성격유형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ANOVA	Welch	Brown-Forsythe	
인생관/세계관의 확립-1	3.45	3.01	3.27	3.30	.000			○
인생관/세계관의 확립-2	3.37	2.99	3.25	3.25	.001			○
인생관/세계관의 확립-3	3.17	2.83	3.01	3.05	.005			○
인생관/세계관의 확립-4	3.52	3.25	3.35	3.41	.029			○
과학적 태도-1	3.67	3.45	3.58	3.59	.131			
과학적 태도-2	3.54	3.23	3.38	3.42	.017			○
과학적 태도-3	3.22	2.99	3.19	3.15	.068			
과학적 태도-4	3.45	3.09	3.08	3.27	.000			○
예술적 태도-1	3.08	2.82	3.09	3.02	.036			○
예술적 태도-2	3.15	3.03	3.08	3.11	.506			
예술적 태도-3	3.00	2.83	2.99	2.95	.310			
예술적 태도-4	2.99	2.88	2.90	2.94	.532			
종교적 태도-1	2.45	2.33	2.54	2.44	.213			
종교적 태도-2	2.32	2.21	2.14	2.25	.221			
종교적 태도-3	2.32	2.20	2.07	2.23	.068			
종교적 태도-4	2.56	2.44	2.26	2.46	.045			○
이상에의 접근-1	3.85	3.48	3.45	3.66		.000	.000	○
이상에의 접근-2	3.81	3.42	3.66	3.68	.001			○
이상에의 접근-3	3.70	3.31	3.55	3.56	.001			○
이상에의 접근-4	3.28	2.84	3.12	3.14	.001			○

* 등분산인 경우는 ANOVA, 이분산인 경우는 Welch와 Brown-Forsythe의 검정을 수행함.

** 유의 수준은 0.05.

(2)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표 29〉에서 보면 문화적 적응관련 발달과제에 대하여 9가지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분산분석한 결과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유의한 발달과제는 인생관/세계관의 확립과 이상에의 접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그렇게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의 존중, 창의성과 연구하는 태도(과학적 태도-3,4), 종교적 태도에서는 종교적인 행사이해, 신앙의 의의이해(종교적 태도-2,3)에서 성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술적 태도에서는 아홉가지 성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다.

〈표 30〉은 아홉개 성격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 사후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는 성격유형 쌍을 확인해본 결과이다.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3번 유형(9개 항목), 4번 유형(5개 항목), 2번 유형(2개 항목), 1번 유형(2개 항목)이다. 반면에 1개 이상의 타 성격유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성격유형은 5번 유형(9개 항목), 8번 유형(2개 항목), 9번 유형(3개 항목), 7번 유형(1개 항목)이다. 특히 3번 유형은 인생관/세계관의 확립 4개 항목 모두와 이상에의 접근 4개 항목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높게 갖는다(인생관/세계관의 확립-4), 자신의 적성

〈표 29〉 성격유형(9집단)별 평균 - 문화적 적응 과제

성격유형 항목	2	3	4	5	6	7	8	9	1	전체
인생관/세계관의 확립-1	3.31	3.52	3.84	2.75	3.37	3.22	3.15	3.22	3.34	3.30
인생관/세계관의 확립-2	3.39	3.33	3.52	2.76	3.29	3.18	2.85	3.21	3.38	3.25
인생관/세계관의 확립-3	3.06	3.26	3.29	2.70	3.06	2.93	2.65	3.09	3.05	3.05
인생관/세계관의 확립-4	3.39	3.60	3.81	3.03	3.57	3.41	3.15	3.25	3.47	3.41
과학적 태도-1	3.57	3.73	3.90	3.34	3.51	3.59	3.31	3.88	3.43	3.59
과학적 태도-2	3.45	3.59	3.74	3.31	3.06	3.21	3.19	3.57	3.29	3.42
과학적 태도-3	3.06	3.32	3.58	2.96	2.86	3.10	3.42	3.09	3.19	3.15
과학적 태도-4	3.30	3.57	3.68	2.90	3.26	3.29	2.58	3.00	3.26	3.27
예술적 태도-1	3.01	3.08	3.52	2.67	2.86	3.04	3.15	3.10	3.07	3.02
예술적 태도-2	3.10	3.12	3.68	2.85	2.94	3.34	3.31	3.00	3.08	3.11
예술적 태도-3	2.86	3.06	3.45	2.63	3.06	3.01	2.88	3.00	3.01	2.95
예술적 태도-4	2.89	3.02	3.45	2.82	2.91	2.96	2.65	3.09	2.84	2.94
종교적 태도-1	2.46	2.43	2.58	2.11	2.74	2.44	2.65	2.51	2.54	2.44
종교적 태도-2	2.32	2.23	2.90	2.06	2.43	2.34	2.23	1.96	2.24	2.25
종교적 태도-3	2.31	2.27	2.71	1.99	2.46	2.37	2.15	1.93	2.15	2.23
종교적 태도-4	2.55	2.52	2.87	2.25	2.60	2.65	2.08	2.13	2.40	2.46
이상애의 접근-1	3.80	3.88	4.00	3.56	3.31	3.44	2.73	3.43	3.65	3.66
이상애의 접근-2	3.72	3.90	3.77	3.41	3.34	3.47	3.58	3.41	3.85	3.68
이상애의 접근-3	3.57	3.81	3.74	3.27	3.54	3.24	3.38	3.28	3.78	3.56
이상애의 접근-4	3.26	3.30	3.35	2.79	2.97	2.85	2.96	2.96	3.28	3.14

〈표 30〉 성격유형(9집단)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 문화적 적응 과제

성격유형 항목	차이가 유의한 성격유형 쌍*
인생관/세계관의 확립-1	2>5, 3>5, 4>5, 1>5
인생관/세계관의 확립-2	2>5, 3>5, 4>5, 1>5
인생관/세계관의 확립-3	3>5
인생관/세계관의 확립-4	3>5
과학적 태도-3	없음
과학적 태도-4	3>5, 3>8, 3>9, 4>8
종교적 태도-2	4>5, 4>9
종교적 태도-3	없음
이상애의 접근-1	3>8, 4>8
이상애의 접근-2	3>5
이상애의 접근-3	3>5, 3>7, 3>9
이상애의 접근-4	3>5

* 유의 수준은 0.05. 등분산인 경우는 Tukey HSD, 이분산인 경우는 Tamhane 검정을 수행함.

을 판단한다(직업, 진로), 자신의 뜻을 세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장애에 좌절하지 않는다(이상의 접근-1, 2, 3, 4)는 발달과제 모두에 대하여 높은 반응을 보인 3번 유형의 성취지향적인 특성이 잘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성격유형의 쌍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서도 특히 인생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자살, 가해, 학대를 방지한다(인생관/세계관의 확립-1, 2)에서는 감정형에 속하는 2번, 3번, 4번 유형과 본능형에 속하는 1번 유형이 모두 5번 유형과 짝을 이루어 높이 나타난다. 완벽주의자 1번 유형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이상주의적이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형이

다. 이러한 1번 유형의 성격이 이들 발달과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독서방식에 대한 성격 유형별 차이 검증

(1) 세 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성격유형별로 독서방식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유의한 것을 얻을 수 없었다. 우선 3가지의 성격유형별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성격유형별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것은 없다.

(2) 아홉가지 성격유형별 분석

〈표 32〉와 같이 아홉가지 성격유형별로 독서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도 위의 경

〈표 31〉 성격유형(3집단)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검정 - 독서방식

항목	성격유형	평균				집단 간 차이 유의 수준*			유의한 경우**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전체	ANOVA	Welch	Brown-Forsythe	
목독		4.05	3.98	3.82	3.98		.134	.117	
통독		3.93	3.84	3.90	3.90	.690			
정독		3.41	3.19	3.32	3.33	.119			
다독		2.80	2.88	2.89	2.84	.606			
발췌독		2.48	2.67	2.54	2.54	.258			
음독		2.09	2.08	2.24	2.12		.424	.403	

* 등분산인 경우는 ANOVA, 이분산인 경우는 Welch와 Brown-Forsythe의 검정을 수행함.

** 유의 수준은 0.05.

〈표 32〉 성격유형(9집단)별 평균 - 독서 방식

항목	성격유형	2	3	4	5	6	7	8	9	1	전체
목독		4.08	4.00	4.16	4.07	3.57	4.06	3.88	3.96	3.71	3.98
통독		3.89	3.93	4.13	3.93	3.60	3.82	3.65	4.16	3.78	3.90
정독		3.29	3.47	3.71	3.22	3.06	3.22	2.88	3.37	3.39	3.33
다독		2.85	2.80	2.45	2.90	2.77	2.91	3.00	2.99	2.80	2.84
발췌독		2.44	2.58	2.13	2.58	2.69	2.81	2.92	2.53	2.44	2.54
음독		2.04	2.16	1.90	1.91	2.31	2.22	2.35	2.00	2.37	2.12

우와 마찬가지로 성격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격유형별로 독서성향이 나 행태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봄으로써 성격유형을 활용한 독서치료가 가능할지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K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반응, 독서방식이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와 독서성향 및 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서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에니어그램상의 세 가지 성격유형(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에 따라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 즉 독서성향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아홉개의 성격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는 쌍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독서방식은 성격유형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긍정적인 감정상태에서 편안한 시간과 한적한 공간을 즐기기 위하여 책을 읽고 싶어하는 반면 고민이나 진로, 성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책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성격유형간의 차이검정 결과를 보면

감정형(2, 3, 4번)이 사고형(5, 6, 7번)이나 본능형(8, 9, 1번)보다 강하게 높은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감정형의 대부분이 특히 5번과 짝을 이루어 차이를 보여주었다. 5번 유형 다음으로 감정형과 짝을 이루어 반응을 보인 것은 9번 유형이다. 또한 감정이 메말랐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와 같은 감상적인 상황에서는 감정형이 사고형이나 본능형보다 더 책을 읽고 싶다고 한 반면 공부가 안될 때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2) 책을 읽을 때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은 전체적으로 자주자립하려는 태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 이상에 접근하기 위한 태도형성 등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책을 읽겠다는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자세를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본다. 책을 읽을 때 추구하는 발달과업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검정 결과를 보면 (1) 개인적 적응 발달과업에 속한 항목의 70% 이상에서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건강과 자주자립의 태도에 속한 모든 항목에서 이들 성격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능형에 속하는 1번 유형이 타 유형과 짝을 이루어 자기 통제나 향상을 위한 노력에 높은 반응을 보인 것도 주목된다. (2) 사회적 적응 발달과업에 속한 20개 항목에 대한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 성격유형별 집단 간 차이는 단 한 개의 항

목 외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성취지향적인 3번 유형의 반응이 높고, 자기 중심적이며 내성적인 5번 유형이 사회적 발달 과업에 대한 반응에서 다른 유형들과 짝을 이루어 낮게 나왔다. (3) 문화적 적응에 속한 발달과제에 대한 성격유형별 차이검정에서 75% 이상의 항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발달과업에서도 성취지향적인 3번 유형이 모든 항목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상주의적이고 자기

통제를 잘하는 1번 유형의 반응도 그 성격의 특성에 맞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독서성향이 성격유형과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독서치료에서는 상황과 성격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상황과 성격유형을 함께 고려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독서목록을 작성하면 도서관에서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계현. 2003. 『상담심리학 - 적용영역별 접근』. 서울: 학지사.

[2] 김영환, 문수백, 홍상환. 2005.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3] 김정근 외. 2007.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는 체험적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4] 김현택 외. 2003. 『현대 심리학 이해』. 서울: 학지사.

[5] 노안영, 강영신. 2002.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6] 리소, 돈 리처드, 허드슨, 러스. 2000. 『에니어그램의 지혜』. 주혜명 옮김. 서울: 한문화.

[7] 바론, 레니, 와겔리, 엘리자베스. 2006. 『나를 찾는 에니어그램 상대를 아는 에니어그램』. 주혜명, 김태홍, 김환영 옮김. 서울: 연경미디어.

[8] 로어, 리처드, 에베르트, 안드레아스. 2006. 『내 안에 접힌 날개』. 이화숙 옮김. 서울: 바오로딸.

[9] 변우열. 2009. 『독서교육의 이해』. 서울: 조은글터.

[10] 안범희. 2009. 『성격심리학』. 서울: 하우.

[11] 이재환. 2009.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대학 신입생을 사례로 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61-182.

[12] 조미아. 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3] 피셔, 헬렌. 2009.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윤영삼, 이영진 옮김. 서울: 코리아하우스.

[14] 한국도서관협회. 1999. 『상황별 독서 목록』.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5] 한국심리학회. 2003.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ye-Hyeon Kim, 2003.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kjisa.
- [2] Yeong-Hwan Kim, Su-Baek Mun, & Sang-Hwang Hong. 2005. *Psychological testing: theory & practice*. Seoul: Hakjisa.
- [3] Jeong-Geun Kim et al. 2007. *Jeongsingganggwawa Jaabaldaleul Dopneun Cheheomjeok Dokseochiryoo*. Seoul: Hakjisa.
- [4] Hyeon-Taek Kim et al. 2003. *Modern psychology*. Seoul: Hakjisa.
- [5] An-Yeong No, & Yeong-Sin Kang. 2002.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Hakjisa.
- [6] Riso, Don Richard., & Hudson, Russ. 2000. "The Wisdom of the enneagram." Translated by Hye-Myeong Ju. Seoul: Hakjisa.
- [7] Baron, Renee, & Wagele, Elizabeth. 2006. *Are you my type, am I yours?: relationships made easy through the enneagram*. Translated by Hye-Myeong Ju, Tae-Hong Kim, & Hwan-Yeong Kim. Seoul: Yeonkeongmedia.
- [8] Rohr, Richard. & Ebert, Andreas. 2006. *Enneagramm: die 9 Gesichter der Seele*. Translated by Hwa-Suk Lee. Seoul: Pauline.
- [9] Woo-Yeoul Byun. 2009. *Introduction to reading education*. Seoul: Joeungeulteo.
- [10] Beom-Hui An. 2009. *Seonggyeoksimmihak*. Seoul: Hawoo.
- [11] Jae-Whoan Lee. 2009. "Personal Traits and Information Behavior: The Case of College Freshme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61-182.
- [12] Mi-Ah Cho.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Instruction on the Creative Ability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h.D. dis., Sungkyunkwan University.
- [13] Fisher, Helen. 2009. *Why him? why her?* Translated by Yeong-Sam Yun, Yeong-Jin Lee. Seoul: Koreahouse.
- [14]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99. *Sangbyeol Dokseo Mokr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5]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Psychology*. Seoul: Hakmunsa.